



평화도서관

평화를 품은 집

평.품.에 머물다

평화를 품은 집 평화도서관



2020년 봄호

주소 경기도 파주시 파평산로 389번길 42-19
T. 031-953-1625 | F. 031-953-1626 | 홈페이지 www.nestofpeace.com | 밴드 '평화를 품은 집'



2020년
평화도서관의
봄!봄!봄!

2020년 봄은 외로움.

쓸쓸한 겨울산 나뭇가지에

찬바람만 휘휘 돌고

전국을 돌아 돌아 우리의 발을 묶는 코로나19.

그 바람에 서가를 재정리하고,

가끔 가던 평품 뒷산에 올라 봄이 오는 걸 보았다.

초록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주었던 마른 나무사이의 귀룽나무,

작은 연못가의 노오란 산수유, 개나리, 파아란 하늘을 배경으로 분홍을 선사한 진달래

그리고 이어서 터지는 매화와 앵두꽃, 살구꽃

이렇게 추운 겨울이 물러나고 평품에 봄이 왔다.

그리고 코로나 19는 우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그림책과 만나는 평화 이야기

2020년 새해가 밝고 첫 손님으로 온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학생들.
1월 2일인데 아직 방학을 안 했다고 한다.

이 친구들은 평화이야기가 담겨있는 그림책을 미리 40여권을 읽고 온 친구들이었다. 멀리 오면서 좀 더 깊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이다. 읽고 온 책을 진열한 후 평화이야기 중에서도 다양한 주제를 정해 책을 분류한 후, 5명씩 모여 북큐레이션을 진행했다.

나에게 감동을 준 책, 나에게 특별하게 메시지를 준 책,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하고 싶은 책,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도서관 이용자들에게도 소개할 수 있게 기획하기 시작했다. 소개 글, 예쁜 책 속 그림, 내가 느낀 점 등을 배치하면서 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진행할 수 있었다. 그렇게 전시코너에 책을 소개하며 또 다른 책들도 볼 수 있어 더 좋았다.

모두가 정성스럽게 큐레이션 활동을 한 후, 큐레이터들이 친구들에게 큐레이션의 의도, 내용 등을 설명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40여명 가까운데도 전혀 소란스러움 없이 진지하게 진행해서 고맙았다. 인상 깊었던 것은 시종일관 인솔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따뜻한 시각으로 보아주고 여유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점이다.

항상 단체로 올 경우 시간 때문에 재촉하거나 일탈하는 아이들을 억지로 모듬활동을 강요하거나 야단치는 선생님들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더 불편했는데 분위기가 조용히 자율적으로 진행된 것 같아 만족스러웠다.
“선생님들 존경해요”



양평전자과학고 큐레이션

도서관의 프로그램 최고봉, 책 찾아 읽기



청소년 북카페 '놀러와' 친구들. 낯짝 때문에 많이 민망했던 만남이었다.

제노사이드 역사자료관을 둘러본 후 15명이 오붓이 모여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나라별 제노사이드 이야기를 시작했다. 미리 조금이라도 알고 온 친구들은 질문도 진행하며 이야기를 나눈 후 도서관의 책 중에 관련 책을 찾는 활동을 했다. 각자가 충분히 읽은 후 각 사건별 책을 찾아 소개글을 적었다. 문학작품 속 사건과 실제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고 좀 더 필요한 자료들은 다른 책을 찾아가며 신중하게 책 소개글을 적었다.

도서관 책 소개 전시코너에 나의 생각을 담은 책들을 사건별로 전시해 가며 다른 친구들의 소개글을 보고 소개책을 다시 읽어보고... 여유 있고 도서관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고양 청소년 북카페 '놀러와'



마을학교 '화전마을'

마을학교 화전마을 활동가와의 만남 1차, 2차.



7년 동안 마을에서 지역의 중학교에 등지를 틀고 진행해 온 마을 학교, 존경스러웠다. 이제 7년을 하니 작고 소소한 문제이지만 공동체가 가라앉는 느낌이란. 긴 시간 이끌어온 활동가들이 지칠 만도 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제 2의 도약이 필요한 듯...

'오래된 활동가+새로운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2020년의 마을학교 구상을 시작했다. 그림책을 통해 나를 이야기 하고 우리를 이야기 하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 필요한 활동,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그림책을 통해 나누었다.

그리고 2020년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우리는 희망을 품고 헤어졌다. 2번의 만남으로 조금 아쉽긴 했다. 좀 더 다양하고 깊게 이야기 나눌 수 있었는데... 그리고 디테일한 실천까지도 이야기 나눌 수 있었는데... 시간이... 아쉽다.



■ 여주 강천중학교

아픈 제노사이드 이야기이지만 우린 따뜻하게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여주 강천중학교 친구들. 이른 아침 만만치 않은 거리를 달려왔다. 학혀대며 올라와서 도서관 전경에 ‘와우~~’ 감탄사를 연발한다. 도서관 곳곳을 이리저리 다니며 탐색한 후 한 자리에 모였다. 제노사이드 개요만 듣고 짝을 지어 각자에게 주어진 미션(친구들끼리 두 명씩 짝지어 사건을 알아보기)을 수행하러 모두 도서관 곳곳에 흩어졌다. 어떤 친구는 제노사이드 자료관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꼼꼼히 설명글을 읽고 어떤 친구는 키워드 별로 펼쳐있어 책이 찾기 쉽다며 주제에 맞는 책을 찾느라 분주하고, 어떤 친구들은 다락방에 가서 속살거리며 전시내용을 꼼꼼히 보고....

진지한 친구들의 모습에 감탄한 나는 사이사이 돌아다니며 책을 찾아주기도 하고 자료를 함께 보기도 하고 힌트를 주기도 하고... 이 프로그램은 나 역시 미션수행자가 되어 아이들과 함께 진행하다보니 재미가 솔솔하다.



정해진 시간 안에 조금 완성하지 못한 친구도 있지만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친구들이 조사한 내용을 귀 기울여 듣는다. 사건의 이해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만 조금 부과적 설명을 하고 또 다른 모둠이 설명하고...

아이들은 종종 질문을 하기도 한다. 당황한 친구들이 살짝 얼굴을 붉히고...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르는 것을 알아가며 서로를 신뢰하게 된다. 이 활동이 주는 ‘이끌’과 ‘격려’는 우리 모두를 즐겁고 행복하게 한다.

내가 조사해 온 내용을 저렇게 열심히 들어주는 친구가 있어 좋고,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나가 오늘 알게 된

새로운 책을 소개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다.

따뜻한 만남이었다. 너무 열심히 하고 진지해서 인솔선생님께 여쭙봤더니 본인들이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온 친구들이란다. 친구들 최고!!!

■ 고양 동네희화교육센터

숨바꼭질과 기차. 2권의 그림책으로 그려본 한반도

아홉명의 동네희화교육센터 친구들이 토요일 오전 도서관을 찾았다. 나를 역사? 평화? 좀 접해봤고 은근 우리 좀 알아요~ 하며 너스레를 떠는 친구들.

설명보다는 스스로 찾아보고 정리하며 답아보는 시간을 갖고, 2개의 모둠을 정하고 ‘숨바꼭질’ 그림책을 천천히 함께 읽어 내려간다.

그림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글을 덧붙이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전쟁 중 피난민 이야기이고 아픈 역사의 한 장면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전쟁이후 70여년 긴 시간동안 남과 북으로 나뉜 한반도지만 북한의 언어라는 힌트 없이 시작된 낱말 맞추기 게임을 순식간에 끝내는 친구들....

그럼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

아홉명의 아이를 남북한 통일로 가는 준비단계에서 구성된 ‘평화통일준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고 평화통일카드를 이용하여 카드 중에서 우선 실행해 볼 5가지 안건을 토의를 통해 결정해 보기로 했다.



간만에 열정적이지만 상대를 배려하며 열띤 의견을 주고받는 아이들을 보면서 ‘오호라~ 이 친구들 바탕이 남다름을 인정!’ 그리고 나를 깨운 한 친구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다른 무엇보다도 문화교류와 상대를 알아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다른 친구 의견에, “우린 금방 서로를 알아갈 수 있을걸? 우린 한민족이니까 몇 번만 만나도 금방, 쉽게 알 수 있어. 그니까 유럽횡단 열차부터 우선 만들자고.”

모두가 다 중요한 일이고 굳이 우선을 정하지 않아도 될지도 모르지만 이것저것 따지는 어른들보다 아이들의 뜻밖의 시선이 놀라웠다.

그렇게 우리나라 부산에서 출발하고 서울-평양-러시아-유럽의 런던까지 달리는 유럽횡단 열차를 타고 유럽여행을 떠나는 미래를 그린 ‘기차’ 그림책으로 마지막은 작은 감동을 남긴 만남이었다.

김은하 평화통일활동가

새책왔어요

평화도서관에 새책이 왔어요.



청구기호	제 목	저자	출판사
더불어 사는 삶	오늘부터 나는 세계시민입니다	공유희, 윤예림 지음 / 배성규그림	창비교육
베트남	어머니의 자장가	강이경 글 / 여찬호 그림	한마당
아르메니아	두둑의노래	장경선 지음 / 박준우 그림	평화를품은책
아카이브	도서관이 사는 마을	부성현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외국그림책	빨간 호리병박	차오원쉬엔 글 / 김세현 그림	사계절출판사
위안부	옥주씨, : 故문옥주 20주기 추모전	맹정환 외 글 / 조영하 외 사진	희움
인권 / 난민	우리 결의 난민 : 한국의 난민 여성 이야기	문경란 지음	서울연구원
	시리아 난민이야기 :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	돈브라운 글·그림 / 차익중 옮김	두레아이들

청구기호	제 목	저자	출판사
인권 / 어린이인권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인권사전	국제사면위원회 글 / 크리스리델 그림	별글
	빨간 모자야, 어린이 인권을 알려줘	요안나올레흐 글 / 에드가르봉크 그림	풀빛
인권/장애	벽속에 사는 아이	아네스드레스트라드 글 / 세바스티앙 슈브레 그림	어린이작가정신
인권	시스터즈 : 만화로 보는 여성 투쟁의 역사	마르타브린 글 / 제니조달 그림	문학과지성사
	인권, 세계를 이해하다 : 인권과 함께 떠나는 인문학 세계 여행	김누리 외 글	철수와영희
자연환경	그레타툰베리의 금요일 : 지구를 살리는 어느 가족 이야기	그레타툰베리 외 지음	책담
전쟁	병사와 소녀	조르디시에라이 파브라 지음 / 마벨 피에올라 그림	문학과지성사
	론도의 노래	로마나 로마니신 외 지음	산하
차별	파친코 1 / 파친코 2	이민진 지음 / 이미정 옮김	문학사상
	그러나 삶은 계속된다	마샤 스크리푸치 엮음	뜨란
	이 세상에 만약 남자가 없다면 : 교과서에선 말하지 않는 여성 독립운동가 10인의 이야기	곰밤 금	Newt
캄보디아	킬링필드, 어느 캄보디아 딸의 기억	로웅웅 지음	평화북품은책
통일	나는 통일이 좋아요	정혁 글 / 시은경 그림	대교북스주니어
	금강산산이야기 : 1944, 철원에서 비로봉까지	김웅길 지음	딸기책방
	기차타고 부산에서 런던까지	정은주 글 / 박해랑 그림	키다리
평화	이 세상에 어린이가 100명이려면	크리스토프드뢰서 글/노라 코에넬베르크 그림	청어람아이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함민복 지음	창비
	말랑말랑한 힘	함민복 지음	문학세계사
	눈물을 자르는 눈꺼풀처럼	함민복 지음	창비
평화그림책	나는 토림꾼(제주어르신그림책학교)	강성보 글·그림	책여우
	기도(제주어르신그림책학교)	고춘자 글·그림	책여우
	나와 학교(제주어르신그림책학교)	김정소 글·그림	책여우
	지난 겨울 바닷가에서(탐라의탐나는그림책)	박문주 글·그림	제주그림책미술관시민모임
	나의 텃밭, 나의 행복(제주어르신그림책학교)	박성자 글·그림	책여우
	그땐, 그랬지(제주어르신그림책학교)	송미순 글·그림	책여우
	대죽부루기(제주어르신그림책학교)	양달성 글·그림	책여우
	대장공주(제주어르신그림책학교)	장원선 글·그림	책여우
	신양리만화방삼거리(제주어르신그림책학교)	정순경 글·그림	책여우
	양털등지(제주어르신그림책학교)	홍제보 글·그림	책여우
	끼리끼리코끼리	허아성 글·그림	길벗어린이
	도착	손텐 지음	사계절
	멋진 달이 될거야!	진경과 진주	이야기꽃
	이름없는 나라에서 온 스케치 : 도착 The Arrival의 세계	손텐 지음 / 엄혜숙 옮김	사계절
	평화가 전쟁보다 좋을 수 밖에 없는 12가지 이유	김명선 글·그림	단비어린이
한국그림책	이상한 도서관장의 이상한 도서관 : 떴었다, 붙었다! 재미있는 띄어쓰기 그림책!	윤여림 글 / 이나래 그림	천개의바람
	노를 든 신부	오소리 지음	이야기꽃
한국민주주의	근태 선생 관찰기 : 기록하지 못한 그의 진심	최만영 지음	어슬렁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말하고 싶어요 : 김제동의 헌법 독후감	김제동 지음	나무의 마음
한국전쟁	나목	김금숙 지음 / 박완서 원작	한겨레출판
	전쟁쓰레기	하진 지음	시공사

청구기호	제 목	저자	출판사
홀로코스트	어느 독일인의 삶 : 괴벨스 비서의 이야기는 오늘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가	브룬힐데품젤 지음 / 토레 D. 한젠 엮음	열린책들
	한나아렌트, 세 번의 탈출 : 한나 아렌트의 삶과 사상을 그래픽노블로 만나다	켄크림슈타인 글·그림	더숲

평품 살림꾼

우리가 들려주는 **새책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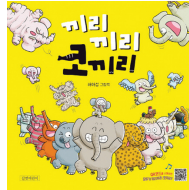


| 인권/난민

시리아 난민 이야기

—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

오랜 시간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시리아 난민에 관한 이야기예요. 종교, 정치 이런 문제들을 떠나 난민들이 겪는 고통과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중심으로 그려냈어요.



| 평화그림책

끼리끼리코끼리

다름에 대해 무겁지 않게 접근하면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명확한 책이에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노래도 들을 수 있어요. 한 번 들으면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 중독성 강한 노래예요. 추천!



| 인권/장애

벽 속에 사는 아이

자폐스펙트럼 장애에 관해 알기 쉽게 비유한 책이에요. 자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게 잘 만들어졌어요.



| 통일

기차타고 부산에서 런던까지

통일이 되면 기차를 타고 북한을 여행할 수 있을까요? 오래 쓰이지 않은 철로는 수리를 거쳐야 기차가 달릴 수 있겠지만, 상상은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요. 러시아에서 유럽 섬나라 런던까지, 여러 나라들로 이 책과 함께 기차 여행을 떠나보세요.



| 한국그림책

이상한 도서관장의 이상한 도서관

띄어쓰기가 어려운 친구들이 보면 좋아요. 띄어쓰기로 달라지는 말 풀이도 뒤에 설명되어 있어서 한글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면 유익하면서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평화통일활동가

지식전달보다 평화, 통일 공감대 형성하기

“될 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잘 자랄 나무는 어린 떡잎에서부터 알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만큼 아이들이 어떠한 교육을 받고 자랐는가가 아이들에게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우리나라는 잠시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국가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이러한 사실이 불안과 공포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4.27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본 우리 아이들은 이제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북한 친구들과 함께 놀아보고 싶다, 평양냉면을 북한에 가서 먹고 싶다, 백두산에 가보고 싶다 등... 통일된 미래 한반도의 평화로운 모습을 꿈꾸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이때 평화통일 활동가 교육을 받은 것은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을 받으며 저희 집의 세 아이와 많은 아이들이 꿈꾸는 당연하고, 소박한 평화들이 이루어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

평화가 통일이다!

평화통일 활동가 양성 교육 기조과정

2019.5.2~6.13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대상 : 파주시 작은도서관 활동가 20명 (선착순)
접수 : 파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송영화 010-9390-7377 / 평화를 품은 집 031-953-1625

회차	일정	제목	강사	장소
1회	5월 2일 (목) 오전 10시~12시	나는 평화입니다	황수경 평화통일운동가	문선도서관
2회	5월 9일 (목) 오전 10시~12시	우리 함께 살 수 있을까?	김철기 경기평화교육연구회 교육위원	문선도서관
3회	5월 16일 (목) 오전 10시~12시	왜 우리오빠에게 총을 썼을까?	명연파 평화통일운동가	평화통일운동가 평화도서관
4회	5월 23일 (목) 오전 10시~12시	통일, 어떻게 말할까?	황수경 평화통일운동가	평화통일운동가 평화도서관
5회	5월 30일 (목) 오전 10시~12시	평화 피라미드를 아시나요?	황수경 평화통일운동가	평화통일운동가 평화도서관
6회	6월 13일 (목) 오전 10시~12시	미군 어린이문화 속 평화이야기	오세웅 미국 어린이문화 연구가	문선도서관

PE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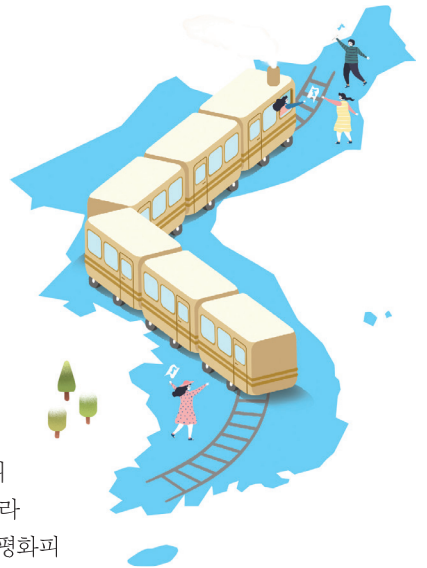
이었습니다. 검증되어진 사실에 활동가의 생각이 더해지는 교육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위험한지를 직, 간접 경험으로 깨닫게 되어 고민하고, 평화 통일 교육의 중요성과 이를 가르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장 깊게 고민하고 알아보는 1년이기도 하였습니다.

지식전달보다는 평화 통일공감대 형성을 주력으로 아이들과 미래의 동반자로서 함께 발전적인 꿈을 꿀 수 있는 평화, 통일 교육을 완성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부와 배움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평화통일활동가 양성교육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활동가 여러분 지난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피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로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깊이 있는 교육을 진행하여 주신 많은 분들께도 이 자릴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힘든 시국이지만 잘 이겨내시길 바라며 평화통일활동가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곽지현 평화통일활동가



평화통일을 책과 함께 준비해볼까요

평화를 품은집과 작은도서관이 공동주최, 주관하고 있는 평화통일양성가 교육 과정을 이수한 평화통일활동가들이 그림책을 중심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과정, 중간과정, 심화과정의 교육을 거쳐 4차시 수업안을 준비하였습니다. 1차시 평화감수성과 통일당위성 교육 시작하기, 2차시 평화피라미드를 통해 평화감수성교육 확장하기, 3차시 우리의 아픈 역사 관련 그림책을 통해 평화감수성 확장하기, 4차시 분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평화통일당위성 교육 확장하기란 주제를 가지고 평화역량을 키우고 통일 공감대를 넓혀가는 과정에 대해 토의하였습니다.

1차시에는 평화보따리 안에 들어있는 평화그림책을 읽고, 평화에 대한 다양한 생각 나눔과 비경쟁토론 활동을 통해 평화에 대한 서로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2차시는 제노사이드피라미드 6단계를 소개하고 단계별로 그림책을 연결시켜 북큐레

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제노사이드피라미드의 각 단계를 평화피라미드로 바꾸는 수업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3차시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인 일제강점기의 위안부 할머니와 징용, 한국전쟁, 제주4.3항쟁, 광주5.18에 대해 느낌을 나누고 역사알기를 통해 생명, 인권, 평화에 대한 활동을 나누었습니다. 4차시 통일그림책과 이산가족 관련 그림책을 읽으면서 분단의 상황에 살고 있는 현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각 차시별 교육안은 평화통일활동가들 별로 다양한 교육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영 평화통일활동가

2019 회원의 날



매년 찾아오는 평풍집 '회원의 날'. 이번에도 어김없이 12월 30일에 평풍집을 애정하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30일이 하필 월요일이라 아쉽지만 못 오신 분들도 많았지요. 19년 한 해 동안 도서관에서 활동했던 평화 어벤저스 아이들의 작품 전시를 비롯해 '《두둑의 노래》작가와와의 만남', 애물장터와 즐거움 경매시간, 아이들의 노래와 아름다

운 음악 연주 등 다양한 볼거리와 들을 거리, 먹거리들이 함께 한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평풍집이 워낙 외진 곳에 있어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얼굴을 보고 서로의 소식과 안부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애물장터 수익금 40만원은 지역의 보육시설에서 새 터전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후원하였습니다.

워크숍 - '평.풍.에 머물다'

2020년 1월 17일~18일까지 평화를품은집 평화도서관의 2019년을 정리하며, 2020년을 계획하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1월 17일에는 2019년을 돌아보며, 도서관을 방문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단체견학, 개인방문, 북스테이, 자원봉사자, 후원회원 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평화를품은책방의 정리, 제도사이드 자료관의 다양한 자료와 방문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월 18일에는 2020년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작년에서 어떤 모습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인지, 어떤 모습을 달리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 평화를품은집 평화도서관의 슬로건을 가짐으로 우리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로 나누었습니다.

2020년 평화를품은집 평화도서관의 슬로건은

'평.풍.에 머물다'로 정해졌습니다.

'평화를품은집'에 머물거나 '평이로운 품'이 아닌 곳에 머물거나 '평화로운 품'안에 머물거나 할 수 있는 2020년을 바라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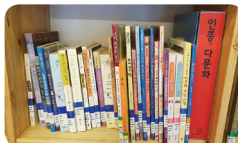
2020년을 맞이하는 워크숍을 마무리했습니다.

책 보기 더 좋은 서가로 거듭났어요.

'평화'라는 기본 개념하에 사건별로 정리되었던 서가와 더불어 이제 2020년부터는 평화라는 키워드로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개념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다름'을 인정하는 것, 평화를 깨트리는 '편견', '차별', '폭력'과 관련 있는 것. 그리고 '다문화', '난민', '성소수자', '가정에서의 인권', '학교에서의 인권' 등 좀 더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서가로 정리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도 책의 주제를 정해 전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많이 참여하세요~~~~



'작은 평화상' 시상

평화를품은집 평화도서관에서 매년 파평초 졸업생들에게 시상하는 '작은 평화상' 시상식이 2020년 2월 3일 파평초 졸업식장에서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평화를품은집 평화도서관과 함께 한 평화체험 활동을 통해 다름과 차이, 편견과 차별, 혐오, 증오, 전쟁 등 평화의 기본 개념을 이해한 이번 졸업생들에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생각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지역과 사회를 평화롭게 만드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밤마실시네마' 상영



2020년 마을주민들과 함께하는 '밤마실시네마' 1월의 영화 《로맨틱레시피》, 2월의 영화 《두 교향》을 상영했습니다.

영화 관람 후 마을 주민들은 두 영화 모두 역사와 문화, 생각과 소명이 다름에서 오는 갈등을 대화와 상호 존중을 통해 상생으로 가는 평화의 정신이 깃든 영화였다고 한마디씩 했으며 다음 영화에 대한 기대를 한껏 가졌습니다.

*3월은 코로나19로 인해 상영 못함.

〈회원소식은 회원이면 모두 소식지를 통해 원하는 소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소개를 해도 되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해도 됩니다. 이번에는 멀리 순창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양은선, 백철부부의 이야기, 평품집 뒤 놀자 숲놀이터의 엄지선 선생님의 소식을 전합니다.〉



양은선, 백철 부부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섬진강감나무골에서 열네번째 유기재배 농사를 짓고 있는 백철, 양은선입니다
섬진강감나무골에서는 일년 내내 햅쌀처럼 맛있는 밥맛을 자랑하는 쌀을 유기재배로 정성껏 농사 짓고 그 쌀을 판매합니다^^

〈감나무골 장터 이용 안내〉

주문은 카페 장터 게시판이나 이메일 또는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게시판이나 이메일로 주문하실 때는 물품을 받으실 분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꼭 적어 주세요.

전화 : 010-2138-7258

이메일 : freenow@hanmail.net

입금은, 주문하고 나서 아래 계좌로 해 주세요. 입금금을 확인하고 물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 농협 352-0016-1548-63(예금주 : 백철)



놀자숲놀이터 엄지선 이야기

엄지선 선생님은 평품집 뒷산에서 아이들과 숲놀이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닮아 있는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십니다. 올해는 파주 환경운동연합의 공동대표를 맡으셨고, 파평마을 교육공동체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시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활동에 박수 보내드립니다.

숲놀이터 프로그램 소개

(주말 숲놀이터) 기간 : 3월~12월 (매월 1회 2,3주 토요일 진행)

오전 10시~오후3시 참가비 1년 10회 50만원

(주중 숲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생태교육 교사, 생태교육

그림책과 함께하는 숲활동 엄마들의 숲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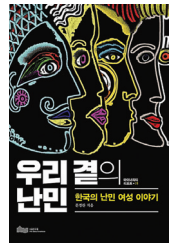
평화를품은집을 새롭게 후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1~3월 : 조정행, 정세리, 김태영, 양세훈, 차미자



평화길찾기모임

평화길찾기 2기 모임은 2020년 1월 토론 도서로 《우리 곁의 난민-한국의 난민 여성 이야기》를 선정하고 한국 속의 난민에 대해서 집중 토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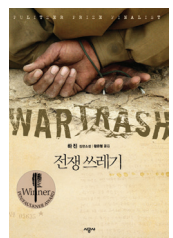


*통계에 의하면 2018년 말까지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4만 8,907명,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937명(전체 신청자의 1.9%), 인도적 체류 지위(체류와 취업의 권리만 인정)를 획득한 난민은 1,156명, 불허 받은 난민은 11,565명, 심사 중인 난민은 6,861명, 철회 및 취소당한 난민은 2,538명이라 함. 난민 단체에 따르면 한국에 난민 불인정상태로 국제적 미아인 '인간쓰레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1,000명 이상이라 함.

도서관 앞으로의 이야기

인문학당 (2020년 6월 20일)

이번 상반기에도 평화를품은집에서 인문학당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문학당에서는 한 국전쟁기 중국군 포로의 삶을 다룬 하진



의 장편소설 《전쟁 쓰레기》를 통해서 적군의 시각에서 본 한국전쟁 이야기와, 인간쓰레기로 분류되었던 전쟁포로들의 이야기를 왕은철 교수님과 나눠보려 합니다. 왕은철 교수는 전북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로 《연을 쫓는 아이》 등 40여권의 역사와 《트라우마와 문학, 그 침묵의 소리들》 등의 저서가 있습니다. 현재 『동아일보』에 칼럼 '왕은철의 스토리와 치유'(매주 수요일)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土) 오후2시에 참가비 1만원과 함께 참석하시면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평화를 품은 집은 임진강과 DMZ(비무장지대)와 가까운,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평화·인권·환경을 주제로 하는 책들이 있는 ‘**평화도서관**’

세계의 제노사이드 사건을 다루는 ‘**제노사이드 역사자료관**’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를 다종이 인형으로 전시한 ‘**다락갤러리**’

다양한 주제에 맞춰 영화를 상영하는 ‘**평품소극장**’

평화 관련 도서를 주제별로 엄선하여 판매하는 ‘**평화를 품은 책방**’

새로 만드는 천연발효빵과 맛있는 커피로

무거운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 주는 ‘**카페 소라브레드**’가 있습니다.



평화도서관



제노사이드 역사자료관



다락갤러리



평화를 품은 책방



소라브레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주제별 평화 도서를 볼 수 있습니다.
-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평화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습니다.(동아리, 학교 연계, 가족 단위 등)
- 제노사이드와 일본군 ‘위안부’ 전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한국전쟁 관련 인근 지역 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평화프로그램

평화프로그램은 참여자의 활동 상황, 관심사, 연령, 인지단계 등을 고려하여 상담 후 진행합니다.

평화를 품은 집 평화도서관 친구가 되어 주세요.

평화를 품은 집은 여러분의 후원과 기부, 재능후원과 자원활동으로 운영됩니다.

친구 회원

CMS를 통해 월 2천원 이상 정기적으로 후원을 받습니다.

기부

관련 도서 및 자료, 시설물 등 저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세요.

재능후원과 자원활동

도서 정리, 번역, 홈페이지 관리, 자료 제작 등 능력을 빌려 주세요.

후원계좌

국민은행 657401-04-002317 평화도서관

시설 이용방법

문 여는 시간 : 4월~9월 오전 10시~오후 6시

10월~3월 오전 10시~오후 5시

휴관 : 매주 월요일과 추석, 설 연휴, 매년 1월

입장료 : 제노사이드역사자료관과 다락갤러리 3,000원, 평화도서관은 무료